

IV 대두라도, 소두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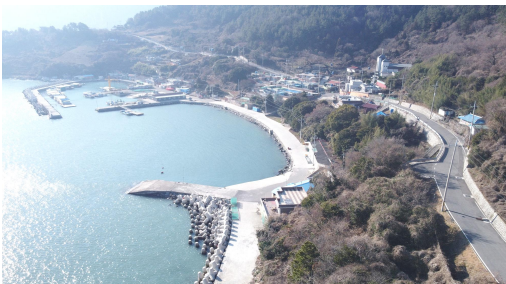
IV. 대두라도, 소두라도

1. 사회·지리적 배경과 환경

가. 사회·지리적 배경

1) 주요 항과의 거리

대두라도의 주요항인 대두라도항은 여수여객선터미널까지는 직선거리로 19.3km 떨어져 있고, 인근에 있는 화태도의 독정항과 마죽항까지는 각각 1.9km 떨어져 있다. 화태도의 월전항까지는 1.46km 떨어져 있고, 나발도항까지는 0.85km 떨어져 있다.



대두라도항



봉통선착장

소두라도의 소두라도항에서 대두라도항까지는 0.9km 떨어져 있고, 화태도의 월전항까지는 1.5km, 독정항까지는 2.2km 떨어져 있다.

2) 인구현황과 토지현황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두라도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상 73세대 128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이중 남자는 60명, 여자는 68명이다. 소두라도의 인구는 8세대 12명이 살고 있고, 남자는 8명, 여자는 4명이다. 대두라도의 면적은 1.01km², 해안선 길이는 7.6km이고, 소두라도의 면적은 0.19km², 해안선 길이는 7.5km이다.

인구현황(명)

구분	세대수	인구수	남	여
대두라도	73	128	60	68
소두라도	8	12	8	4



대두라도



소두라도

3) 공공기관

(1) 대두경찰출장소

1981년 10월 1일 두라리 433번지에 벽돌슬라브 13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대두경찰출장소를 설치하였으며, 1992년 10월 26일 폐소되었다.

(2) 소두경찰출장소

1978년 12월 6일 두라리 433번지에 소두경찰행정연락소를 설치하였다. 1년 뒤인 1979년 2월 13일 소두경찰출장소로 개칭하였으며, 1992년 5월 30일에 폐소되었다.



대두마을회관



봉통노인정

4) 교육기관

(1) 돌산초등학교 두라분교장

1950년 4월 두라리 167번지에 화태국민학교 두라분교장으로 개교하였다. 1982년 3월 두라국민학교로 승격하였다가 학생 수 감소로 1991년 화태국민학교 두라분교장으로 격하되었다. 2022년 3월 화태초등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돌산초등학교로 이관되어 돌산초등학교 두라분교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돌산초 두라분교

-
- 1950. 04. 04. 여수화태국민학교 두라분교장 개교(두라리 167번지)
 - 1982. 03. 01. 두라국민학교로 승격

- 1991. 03. 01. 화태국민학교 두라분교장으로 격하
- 2022. 03. 01. 돌산초등학교로 이관

(2) 화태초등학교 소두분교장

1966년 3월 화태국민학교 소두분교장으로 개교하였다. 1982년 두라국민학교가 승격함에 따라 두라국민학교 소두분교장으로 변경되었다가 1991년 두라국민학교가 분교로 격하됨에 따라 다시 화태국민학교로 이관되었다. 학생 수 감소로 1992년 9월에 폐교되었다.

-
- 1966. 03. 01. 화태국민학교 소두분교장 개교(두라리 30-21번지)
 - 1982. 03. 01. 두라국민학교 소두분교장으로 변경
 - 1991. 03. 01. 화태국민학교 소두분교장으로 변경
 - 1992. 09. 01. 화태국민학교 소두분교장 폐교

5) 의료기관

(1) 두라보건진료소

두라보건진료소는 별도의 건물이 없어 1988년 대두리사무소에서 개소하였고, 같은 해 봉통마을에 있는 윤형래 씨의 집으로 이전하였다. 1989년 두라리 157번지에 22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이전하였으며, 2011년 12월 대두길 87-1에 40평 규모의 2층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2022년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 1988. 대두리사무소에서
두라보건진료소 개소
 - 1988. 봉통마을 윤형래 씨 집으로
이전
 - 1989. 두라리 157번지에 벽돌슬라브
22평 건물 신축 이전
 - 2011. 12. 28. 대두길87-1 / 1,2층 40평 건물
신축 이전
 - 2022. 리모델링 공사



두라보건진료소

나. 지형과 환경

1) 지형

대두라도는 섬의 최고봉은 해발 140m의 구릉지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섬이 하나의 구릉지를 이룬다. 덕분에 농경지가 고루 분포되어 있고, 해안은 주로 암석해안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비교적 단조롭다. 일부 남동해안의 만입부에 소규모 자갈해안이 분포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해식애와 파식대, 시스택, 해식동 등의 파식지형이 주를 이룬다. 특히 섬 동남쪽으로 암석해안이 발달하였다.

소두라도는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좁고 길게 뻗어 있고, 100m 이내의 완만한 구릉지를 이루고 있으며, 중앙부에 경작지가 분포한다. 해안은 단조로운 암석해안으로 해식애와 파식대, 시스택(sea stack) 등의 파식 지형이 주로 나타난다. 특히 경사가 급한 서쪽 해안에는 파식대와 해식애, 시스택 등의 암석해안이 발달한 반면, 평지를 이루는 남쪽 해안은 자갈해안이 발달하고 있다.



대두라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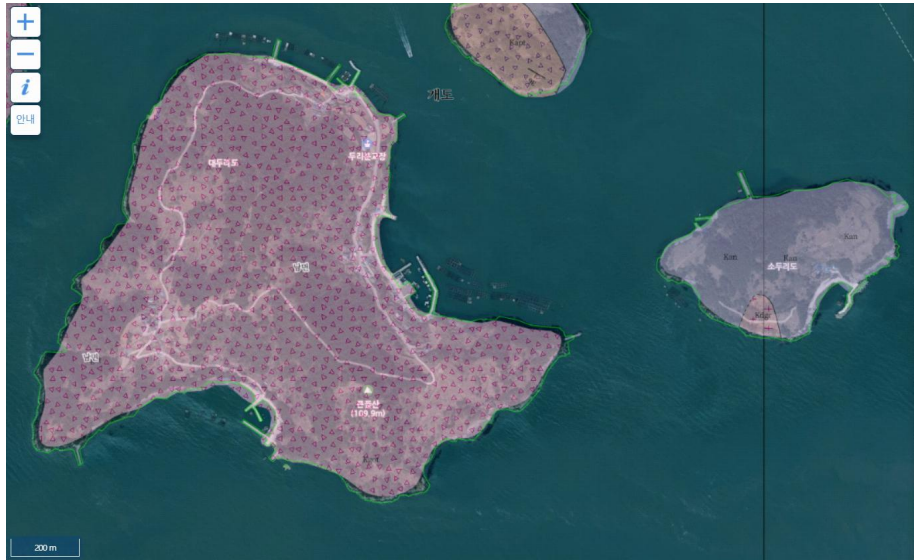


소두라도 전경

2) 지질

대두라도의 지질은 인근의 다른 섬들과 마찬가지로 중생대 백악기의 안산암 및 안산암질 화산각력암으로 이루어졌다.

소두라도는 섬 전체가 대부분 중생대 백악기 안산암(kan)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두라도와 소두라도 지질도¹⁾

3) 토양

대두라도와 소두라도 구릉지를 중심으로 안산암질 응회암 풍화토가 잔적되어 비교적 얇은 토양층을 형성한다. 그리고 산록의 하부와 곡두부는 사면에서 공급되는 풍화산물이 봉적층을 이루고, 평지를 이루는 중앙부에는 충적토가 발달하였다.

4) 기후

인근의 섬들과 비슷하다.

5) 주변 해역조류

인근의 섬들과 비슷하다.

1) 출처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정보시스템

6) 주변 환경

대두라도는 여수시 남쪽 돌산도 신기항에서 남쪽으로 3.3km 떨어져있고 금오도 송고마을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대두라도와 소두라도 주위에는 나발도, 화태도, 월호도 등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루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어 섬 전체에 농경지가 고루 분포한다.

7) 주변 도서

대두라도의 북쪽으로는 화태도가 있고, 서북쪽으로 월호도가 위치해 있다. 동쪽으로 소두라도가 있고, 남쪽에는 금오도가 위치한다.

소두라도는 북쪽에 화태도와 대횡간도가 있고, 서쪽으로 대두라도, 동쪽에는 소횡간도, 남쪽으로 금오도가 위치해 있다.



대두라도 주변 도서

다. 식생과 생태

대·소두라도의 삼림군락은 곰솔군락, 소나무군락, 떡갈나무군락, 참나무군락, 후박나무군락, 동백군락, 다정나무군락, 까마귀쪽나무군락 등이 있으며 아직은 곰솔군락이 전 지역에서 고루 분포하고, 도서지역에서는 드물게 소나무(참솔)군락이 있는 곳이 있는 게 특징이다.

식생은 원래의 난대성 및 소나무속 수종이 훼손되면서 형성된 2차 식생으로서 대상식생의 특징을 보이는 곳도 있지만, 반자연림의 2차 식생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난대성 또는 자연식생에 가까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1) 대두라도와 소두라도의 식물²⁾

콩짜계덩굴은 주로 난대의 습한 지역에서 소나무 등의 기생식물로 자라는 식물인데 두라도 지역은 봉통선창마을에서 대두마을을 거쳐 큰돌산을 지나 봉통으로 넘어가는 길목 고목들에 대부분 콩짜계덩굴이 자리잡고 있다.

봉통선창마을에서 길을 따라 봉통으로 가다 보면 경작지가 시작되는 지점의 목전에는 온통 며느리밀씻개밭이다.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라서 밭을 경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았다. 조사 시기가 막 며느리밀씻개가 꽃을 피우는 시기여서 잔잔한 분홍 용단을 깎 꽃밭을 이루고 있다. 가까이서 봤을 때의 그 날카로운 가시는 보이지 않고 용단으로만 보인다. 그래서 이곳 꽃밭도 가까이에서 자세히 봐야 예쁜 것도 있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보는 것이 더 예쁠 수 있다. 바닷가 쪽으로 경사진 오래된 목전은 모두 칙냉쿨에 덮여 아예 광장을 방불케 지천으로 펼쳐져 있다. 예전에는 농지였는데 초기 목전을 지나 2차 목전으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길 위쪽의 목전은 칼로 잘라놓은 듯이 며느리밀씻개가 들어서 있어 학술적으로도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봉통마을 위쪽으로는 소나무들이 모여 있고 중간 이하는 거의 난대림으로 교체되었다. 마을의 돌담은 주로 송악덩굴이 튼튼하게 지탱해주고 있다. 마을 안쪽의 작은 채소밭이 목전이 되었는데 미국자리공, 망초, 환삼덩굴이 지천이다.

겨울철에는 봉통 선창마을 뒤에도 겨울철에 비단풀이 지천이다. 비단풀은 비단을 갈아놓은 것처럼 땅에 펼쳐서 자란다고 해서 비단풀이라고 한다. 다른 이름으로는 땅에 퍼진 모양이 빈대 같다고 해서 땅빈대라고 불리기도 한다. 강인한 생명력을

2) About전남의식

갖춘 식물이고 플라보노이드와 사포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치매와 감기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비단풀은 3가지 종류로 기본적인 비단풀은 원줄기가 비스듬하고 굽게 생겼다. 애기비단풀은 잎에 붉은 반점이 있고, 가늘고 털이 있다. 큰비단풀은 줄기가 크게 굽은 특징이 있다. 길가나 빈터, 풀밭, 들판 등에서 자라고, 꽃은 8월에서 9월경에 적자색으로 피며, 열매는 가을이 되면 까맣게 익는다. 비단풀의 줄기를 꺾게 되면 하얀색 진액이 나온다. 사포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인삼의 주요 성분인 사포닌 같다고 해서 비단풀 인삼이라고도 불린다. 두통이나 대상포진, 인후염, 잇몸 염증을 치료 등 약재로 다양하게 쓰여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밭에서 나는 귀한 약재였지만, 의학의 발달로 이렇게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다.



불나무



자귀나무



굴피나무

두라도의 숲을 형성하고 있는 식물 중에서 고목들은 주로 굴피나무와 팽나무로 그 개체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느릅나무, 소사나무, 자귀나무, 뽕나무, 예덕나무, 때죽나무, 머귀나무, 옷나무, 줄참나무, 떡갈나무, 말오줌뎨나무, 불나무 등 다른 인근 지역이 늘푸른식물이 많은 것과 비교하여 낙엽수들도 많다. 늘푸른나무로는 광나무, 후박나무, 머귀나무, 사스레피 등이 많이 보인다.

남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아까시³⁾가 두라도에서 군락을 이룬 곳이 몇 군데

3)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까시나무와 아카시아나무는 같은 장미목 콩과에 속하지만, 학명은 물론이고 영문명, 잎·꽃 형태, 개화 시기, 특징 등이 모두 다른 식물이다. 아까시나무의 종명은 '유사아카시아'라는 뜻의 '슈도아카시아'(pseudoacacia)로, 우리나라에는 19세기에 처음 들어왔다. 한국전쟁 이후 산림 녹화 사업을 통해 대량으로 산에 심어지며 '유사'(pseudo)라는 뜻이 생략되고 '아카시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그 명칭이 굳어졌다. 이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2015년 한국과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베트남산 아카시아꽃이 수입되면서 소비자들이 국내산 아카시아꽃과 혼동할 가능성이 생겼다. 농진청은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양봉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산 아카시아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출처 : 동양일보(<http://www.dynews.co.kr>)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까시 군락은 일제강점기 일본이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한 후 임시방편으로 번식력이 좋은 아까시 씨앗을 뿌려 빠른 녹화를 추진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후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은 지역에서 왕성한 번식력을 바탕으로 군락을 이룬다. 이런 군락들로 아까시가 대표적인 밀원식물로 우리나라에 아까시꿀이 대중화되는 데 앞장서게 되었다. 기후적인 특징이나 생태특징으로 미루어 일반적으로 남면 지역에 많이 자생하는 동백군락이 거의 보이지 않고 아카시아가 많다. 이런 현상은 동백이 자생하고 있는 것을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마구잡이로 캐간 것으로 추정된다. 봉통 선창마을에서 봉통마을로 넘어오는 길 중간쯤, 왼쪽으로 바다가 보이는 공지에 아카시아가 많다.

봉통마을 어귀에는 바닷가를 따라 시누대가 많다. 지리적인 상황이나 그 환경적인 상황으로 미루어 방풍림으로 일부러 조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야산 어디라도 그렇듯 대두라도에도 붉나무가 많다. 기후변화로 붉나무의 개체수가 급속하게 퍼지는 영향도 있을 것이다. 붉나무의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산림생태계의 선순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봉통마을에서 봉통 선창마을 쪽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개다래덩굴이 높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다.

2) 주요식생과 식물상⁴⁾

대두라도의 주요 식생은 큰돌산(109.9m)을 중심으로 곰솔군락이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동백나무를 비롯한 상록활엽수림이 분포하고 있다. 섬의 서북쪽 해안을 따라 어가와 농경지가 있고, 휴경지에는 노방잡초군락인 칩군락, 망초군락, 환삼덩굴, 바랭이군락 등이 출현하였다.

소두라도의 주요 식생은 북서지역에 곰솔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섬 중앙에서 북서 해안을 따라 서식하고 있으며, 섬의 중심부 남동쪽으로 어가와 농경지가 있고, 휴경지에 칩군락, 망초군락, 환삼덩굴, 바랭이군락 등이 출현하였다.

대두라도에 출현하는 관속식물은 27과 45속 65종, 2변종이 출현하고 있다. 이 지역의 특징종은 상록수종으로 곰솔, 생달나무, 구실갯밤나무, 후박나무, 붉가시나무, 동백나무, 사스레피나무, 멸꿀, 초본류는 인동, 밥풀고사리, 풀고사리, 큰봉의꼬리, 갯까치수영, 해국, 자란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외 민가 주변으로 비름, 한련초, 진득찰, 쑥, 가막사리, 쇠뜨기, 환삼덩굴, 바랭이, 잔디, 토끼풀, 파리풀, 망초, 개망초, 꽃향유, 맥문동, 자귀풀, 땡땡이덩굴, 실새풀, 주름조개풀, 띠,

4) About전남의섬

억새, 솔새, 비수리, 짚신나물 등의 초본류가 출현하고 있다.

소두라도에 출현하는 관속식물은 25과 35속 52종, 1변종이 출현하고 있다. 이 지역의 특징종은 상록수종으로 곰솔, 구실잣밤나무, 후박나무, 붉가시나무, 동백나무, 사스레피나무, 초본류는 밥풀고사리, 풀고사리, 큰봉의꼬리, 갯까치수영, 해국, 자란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외 민가 주변으로 비름, 한련초, 진득찰, 쑥, 가막사리, 쇠뜨기, 환삼덩굴, 바랭이, 잔디, 토끼풀, 파리풀, 망초, 개망초, 꽃향유, 맥문동, 자귀풀, 땃덩이덩굴, 실새풀, 주름조개풀, 띠, 억새, 솔새, 비수리, 짚신나물 등의 초본류가 출현하고 있다.

3) 육상동물

대두라도와 소두라도의 육상동물은 인근의 대두라도와 비슷하다.

4) 해양생물

대두라도와 소두라도의 해양생물은 인근의 대두라도와 비슷하다.

5) 다도해해상국립공원

1981년 12월 23일 14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금오도 지구에 속한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표지판

6) 보호수

대두라도와 소두라도에는 보호수가 없다.

2. 역사와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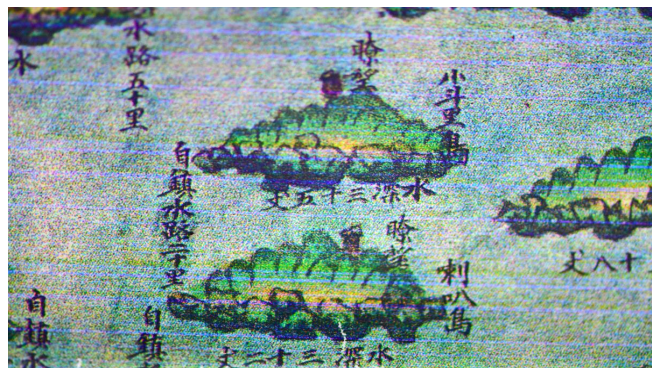
가. 연혁

대두라도와 소두라도는 여수시 남면 두라리에 속하는 섬이다. 대두라도에도 인근의 다른 섬과 마찬가지로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조개더미 유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두라도와 소두라도는 1396년(태조 5) 순천부에 예속되었다. 1896년 돌산군이 설치되면서 금오면에 편입되었으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돌산군과 여수군이 통합되면서 여수군 남면에 속하였다. 1949년 여수시 승격으로 여천군 남면에 속하였다가 1998년 3여통합으로 여수시 남면 두라리로 개편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호남연해형편도

두라도는 1678년 허목의 『목장지도』에 대두리도(大斗里島)와 소두리도(小斗里島) 기록이 보이고 1789년 기록인 『호구총수』 여수면 하도에 두리도(斗里島)로 표기되었다. 1872년의 「순천방답진지도」에도 대두리도(大斗里島)와 소두리도(小斗里島)로 기록되었다. 두리도는 섬의 생김새가 두리두리하게 생겼다고 하여 두리도라 불렀다고 전해진다. 현재의 명칭은 1914년 일제식 행정구역 개편 시 이웃하고 있는 나발도와 범정리로 통합되면서 두라리라 하였고 이후 섬의 이름까지도 두라도로 바뀌게 되었다.



순천방답진지도

나. 마을유래

1) 대두라마마을

대두라도는 구전에 의하면 1659년 나주임씨 동장이 돌산에서 거주하다가 생활이 어려워져 살 곳을 찾다가 이곳에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이후 1700년경 경주김씨, 달성서씨가 이주해 와서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이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14년 일제강점기 행정구역이 개편되자 호적정리를 위해 법정리 이름을 정하게 되면서 섬의 작은 마을인 관계로 이웃하고 있는 나발도(羅發島)와 한마을로 통합하게 되었다. 이때 두리도의 두(斗)와 나발도의 나(羅)를 한 글자씩 취해 두라리(斗羅里)라 부르게 되었다.



대두라마마을



대두라마마을(2008년)

2) 봉통마을

봉통마을에는 1590년경 장씨가 처음 입주하였다고 전해지나 후손이 없어 정확한 유래는 알 수가 없다. 이후 1670년경 파평윤씨, 김해김씨가 입주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봉통마을은 대두라마마을과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의 형태가 별통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별통구미'라고 불리다가 이후 '봉통'이라 바뀌었다.



봉통마을 전경



봉통선창마을

3) 소두라마울

소두라도에 처음 사람이 들어 온 것은 1660년경이라고 한다. 당시 전주이씨가 들어와 40년간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였고, 그 후 1770년경에 김해김씨가 들어오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전해진다.



소두라도마을 전경

다. 고고·역사유적과 유물

1) 대두라도요망(大斗羅島瞭望)⁵⁾

남면 두라리 산 17-1번지, 산 27-1번지 일원의 북위 34° 34' 2.61" 동경 127° 43' 53.82"의 해발 150.4m의 당산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으로 돌산도와 화태도, 서쪽으로는 개도, 월호도가 있고, 동쪽으로 대두라도, 남쪽으로 면소재지인 금오도가 위치하고 있다. 돌산도 방답진의 바로 앞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섬들과 근접하여 있어서 신호를 연결하며 방답진의 망대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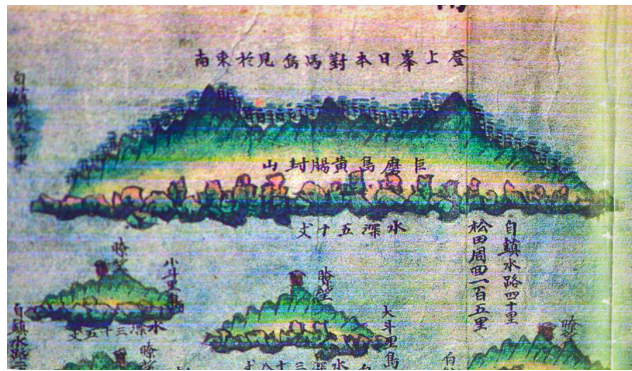
대두라도요망은 '조선후기의 지방도'의 「순천부지도」와 「순천방답진지도」에 나타나는데, 「순천부지도」에는 해중의 대두리도(大斗里島) 산사면에 황색 '철(凸)자 형태로 작게 표현 후 '요망(瞭望)'이라 표기하였다. 「순천방답진지도」에는 해중의 대두리도(大斗里島) 산정부에 가옥 형태로 표현 후 '요망(瞭望)'이라 표기하였다.

요망대가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산 정상에는 전파수신탑이 시설되어 있어, 훼손으로 인하여 요망 유적은 찾아볼 수 없다.

주변 대응가능한 봉수, 요망, 망대 등의 직선거리는 방답진 5.5km, 대두라도요망 2.9km, 자봉도요망 5.1km, 월호도요망 1.6km, 개도요망 7.0km이다. 대두마을에서 봉통마을로 가는 섬의 종주도로를 따라가다 당산재에서 오른쪽의 임도를 따라가면 된다.



산정상부 전파수신탑



순천방답진지도 대두리도요망

5)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 비지정 문화유산 기초학술조사』, 2019.

2) 소두라도요망(小斗羅島瞭望)⁶⁾

두라리 30-6번지의 북위 34° 33' 56.20" 동경 127° 44' 51.69" 해발 97.0m 인 마을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서쪽으로 대두라도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서쪽으로 나발도, 북동쪽으로 대두라도가 위치하고 있다. 산정에서는 주변의 바다와 섬들을 사방으로 조망이 가능하며, 북쪽의 돌산도 천왕산 아래로 요망을 관장하였던 방답진이 있다.

소두라도요망은 '조선후기의 지방도'의 「순천부지도」와 「순천방답진지도」에 나타나는데, 「순천부지도」에는 해중의 소두리도(小斗里島) 산 사면에 황색 '철(凸)'자 형태로 작게 표현 후 '요망(瞭望)'이라 표기하였다. 「순천방답진지도」에는 해중의 소두리도(小斗里島) 산정부에 가옥 형태로 표현 후 '요망(瞭望)'이라 표기하였다. 요망지로 추정되는 산정에는 헬기장이 시설되어 있으며, 요망 유적은 헬기장 시설로 인하여 훼손되어 찾을 수 없다.

주변 대응 가능한 봉수, 요망, 망대 등의 직선거리는 방답진 6.1km, 대두라도요망 1.6km, 월호도요망 3.0km, 대두라도요망 1.6km, 나발도요망 10.0km이다.



정상부 헬기장 축대



헬기장

6)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 비지정 문화유산 기초학술조사』, 2019.

라. 두라도의 어제와 오늘

(1) 대두라도와 소두라도의 목장

대두라도와 소두라도에 목장이 설치되었다는 기록은 1678년(숙종 4년) 허목이 찬술한 『목장지도』에 처음 등장한다. 여기를 보면 검모도, 수태도, 소리도, 대두리도, 소두리도, 안도, 빗견도(非叱見島)목장 등 7곳이 설치되었다. 여기서 검모도는 현 금오도, 수태도는 현 화태도, 소리도는 현 연도, 대두리도는 현 대두라도, 소두리도는 현 소두라도, 안도는 현 안도, 빗견도(非叱見島)는 현 황간도를 이르는 것이다. 다만 목장의 규모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 알 수가 없다.

이 목장들은 1618년(광해 10년) 찬술되었던 『승평지』에 나타나지 않고 1687년에 찬술된 『목장지도』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보아 1618년 이후에서 1687년 사이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보면 대두라도와 소두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늦은 시기에 목장이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남면지역에 상당히 많은 목장이 들어서게 된 것은 조선정부의 정책에 의한 것이지만 그보다는 이곳이 겨울에도 그다지 춥지 않고 물과 풀이 풍부하여 목양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설치되었던 대·소두라도목장은 이후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1678년 이후인 1770년(영조 46) 이전 혹은 1797년 이전 시기에 흥양현으로 이속되었다가 이후 폐지되었다.



사복시 소속의 목장지도

(2) 식수난이 심각했던 두라도

두라도는 섬이 작아 예전부터 식수난이 심각했다. 특히 겨울에 가뭄이 들면 우물이 바닥나서 도선이 나 어선을 이용해 금오도나 돌산 등 물이 좋은 곳까지 가서 날라다 먹어야 했다. 만약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기라도 하면 발이 묶여 물을 구할 수 없어 극심한 식수난을 겪어야 했다. 물저장탱크를 만들어 식수를 해결하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가뭄이 들면 그마저도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경향신문 1966년 10월 5일자 기사에 의하면 경향신문사에서 제정한 제1회 ‘국민이 주는 희망의상’ 최연소자로 수상한 강기영 선생님은 화태초등학교 두라분교장 교사였는데 상금으로 받은 10만원을 두라분교장 수도시설 등을 위해 쓰겠다고 할 만큼 식수난이 심각했다.

지금은 간이상수도시설과 해수담수화시설이 설치되어 가뭄에 대한 걱정을 덜었다.



간이상수도 시설



봉통선청마을 해수담수화시설

3. 섬 생활의 변천

가. 두라도의 생업

1) 농업

주민의 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며 반농반어의 생활을 한다. 옛날의 주요 농작물은 쌀, 보리, 수수, 조, 콩, 마늘, 고구마였으며, 마을 뒷산에 돌담을 쌓아 천수답으로 쌀농사를 지었다. 노령화로 인해 쌀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묵힌 논에 한때 소를 많이 키우기도 했으나, 지금은 몇 마리만 키우고 있다.



묵힌이 된 천수답



소키우기

2) 어업

대두라도 주변의 바다는 좋은 어장이어서 멸치, 낙지, 전복 등이 많이 잡혔고, 한때 굴과 가두리 양식도 하면서 고대구리가 가능할 때만 해도 제법 부유한 섬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어족자원이 감소하면서 줄어들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멸치가 많이 잡히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다행히 2023년 말부터 멸치가 많이 잡혀서 어민들의 얼굴이 조금 퍼질 수 있었다.

한때 대두라도는 가두리양식으로 유명했다. 실제로 대두마을과 봉통선창마을 바닷가에는 아직도 가두리양식장이 남아 있다. 가두리양식은 작은 치어를 가두리에서 3년 정도를 키워야 하는데 오랫동안 가두리양식을 하다보니 양식장 밑바닥에 사료 찌꺼기와 배설물 등이 쌓이면서 어업 생산성이 점점 저하되었다. 게다가 태풍과 적조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반복되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점차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십여 년 전부터 가두리양식에서 전복 양식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으며 전복의 먹이로 쓰기 위해서 다시마도 함께 양식하고 있다.



가두리양식장(2008년)



멸치 말리기

나. 해운교통

대두라도에는 차도선 해동스타호가 2006년 12월 1일부터 여객선으로 취항하여 운항하였다. 이전에도 해동스타호가 운항하였으나 이때 여객선으로 정식 취항하게 된 것이다. 이후 해동스타호의 노후화로 신아해운 소속의 한려3호가 하루 4회 운항하고 있다.

소두라도는 정기여객선이 다니지 않다보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선이나 낚싯배를 이용해 섬에 들어가야 해서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는 여수시에서 정기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섬에 도선을 마련해 2023년 말부터 섬섬여수2호가 화태도 월전항에서 소두라도까지 운항하고 있다.



해동스타호



한려3호

다. 두라도 주민들의 생애사

1) 대두마을 윤수남 어르신

■ 젊은이들이 다시 들어오는 대두라마울

두라도를 가기 위해 화태도 동쪽에 있는 월전마을(달밭기미) 해변주차장에 도착한 후 주차를 하고 기다리니 약속한 작은 배가 왔다. 물살을 가르며 대두라도 마을로 향했다. 두라도는 본래 두리두리하게 생겼다 해서 두리섬이라 불렀다고 한다. 일제시대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두라도와 이웃하고 있는 나밭도와 함께 법정리가 통합되자 두리도의 두(斗)자와 나밭도의 나(羅)자를 합쳐서 두라리가 되었고 섬 이름도 두리에서 두라가 되었다고 마을유래지에서 설명한다. 그래서 두라도의 큰섬을 대두라, 작은섬을 소두라라고 하게 되었다. 2개의 두라도 중 큰 섬인 대두라도의 대두마을에 내리기는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서 무작정 마을 길을 걸어갔다. 선창 앞에서 바라볼 땐 집이 몇 채 보이기는 했지만, 교회 건물은 보이지 않아서 도대체 어디에 교회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무작정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수도공사가 한창이다. 경사진 길을 따라 올라가니 보건소와 학교가 보이고 마을은 보이지 않는다.

학교를 지나 조금 걷다 보니 대두마을이 보이고 마을회관과 대두교회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다. 교회에 들렀으나 예배 중이라서 잠시 마을을 둘러보다가 윤수남 어르신을 만났다. 윤수남 어르신은 현재 대두교회에서 장로를 맡고 있으며, 해방되기 바로 2년 전인 1943년에 태어나 올해 연세가 여든셋이다. 윤수남 어르신은 이곳 대두마을에서



윤수남 어르신과 부인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다. 윤수남 어른신의 아버지도 대두라도에서 태어나 살다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건너편 금오도 우학리에서 시집와서 6형제를 낳았다고 한다. 윤수남 어른신은 그중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8살 때 한국전쟁을 겪었는데 그 당시에 인민군이 대두라도에 들어오자, 아이들이 인민군을 따라다니면서 실탄을 주웠던 기억도 남아 있다. 이 웃하고 있는 돌산이나 금오도는 전쟁시기에 피해가 있었지만, 대두라도는 다행히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윤수남 어른신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 그 시기의 친구들도 대부분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의 일을 돕거나 생업에 뛰어들었다. 윤수남 어른신도 부친과 같이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 어업을 했다. 어업이라 해도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옛날 방식으로 문어도 잡고, 주낙으로 조기나 갈치를 잡아서 동생들을 가르쳤다. 그땐 그렇게 해야 살 수가 있었다. 당시 1개 면에 대학생이 5~6명밖에 되지 않던 시절인데도 대학을 졸업한 동생이 있었다. 그 동생은 대학 졸업 후에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한다. 목사가 되었던 동생이 작년에 암으로 사망했다면서 안타까워했다. 다른 동생들은 경기도에도 살고 있고, 여수에도 살고 있고, 서울에도 살고 있다.

21살 때인 1964년에 군대에 가서 1966년에 제대를 했다. 그다음 24살이 되어 1967년 정월에 교회를 통해 지금의 아내와 중매로 결혼했다. 부인은 두라도와 가까운 돌산 신기에서 시집을 왔다. 9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봉통마을에 두라리교회가 있어서 주일마다 교회를 다녔다. 교회까지 거리가 멀어서 대두마을에도 교회를 세워야겠다고 생각해서 윤수남 어른신의 아버지가 대두마을에 교회를 개척할 때,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나는 섬에서 커서 초등학교를 나와 이 섬에 살았지. 대두라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시내 가서 큰 배 타고 바다에 나가 열흘이고 일주일이고 있다가 오는데 나는 그렇게 큰 사업을 못 해 봤어요. 큰 배 타고 바다에 가서 일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러웠는데 아버지가 반대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 아버지는 내가 젊어서부터 항상 비록 너가 힘이 들더라도 장남으로서 동생들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지방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윤수남 어르신은 83년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이 섬을 지키면서 살고 있다. 슬하에는 4남매를 두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비록 자신은 대두라도에 살면서 못 배웠지만, 자식들만이라도 제대로 가르쳐서 이 섬에 살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자녀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큰딸만 여수로 나가 중학교에 진학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화태도에 중학교가 생기면서 화태도에서 중학교를 다녔다.

한편, 최근 대두라도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특히 대두라도와의 연륙연도교 공사가 완공되면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두라리는 현재 다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세대에 잡은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뀌었는데 양식 사업을 하면서 수협이나 농협에서 채무가 많아 사업을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망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모두 시내로 나가게 되었고, 배운 것이 없으니까 막노동으로 생활했는데 세대가 변화되고 어업이 발달하면서 지금 나가서 살던 젊은이들이 전부 다시 들어와서 인근 24개 마을 중에서 젊은 청년이 가장 많은 마을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두라마울의 발전 가능성이 무척이나 크다고 생각해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하고 지금을 비교하면 그냥 천지가 개벽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조그마한 섬에 아스팔트가 깔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른 마을은 젊은이들이 들어오는 유입 인구가 적는데 지금 두라도는 어업 형태가 바뀌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게다가 내년 4월이면 여기에 연륙교 첫 삽을 떠요. 우리 자녀들 중에도 공무원 있는데, 큰아들은 퇴직하면 여기 와서 산다고 그래요. 사는 것은 시내가 편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시내 사람들이 훨씬 더 고되게 일을 해야 먹고 살아요.”

대두라도의 주민들은 비록 섬에 살지만, 형편이 좋아 대부분 자가용을 구입해서 교통 불편을 크게 겪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

“두라리만 해도 자가용이 12대인데 화태도에 주차해 놓고 배를 타고 여기서 5분이면 가거든요. 하루 이곳에서 바닷일을 한 서너 시간 하고 또 여수 시내 볼 일 있고 자녀들 만날 일 있고 또 모여서 하고 싶고 그러면 배 타다 놓고 그냥 여기 자가용 타고 시내 가서 생활하고 다 즐기고 생활하고서 다시 오고 그래요.”

대두마을은 현재 가구는 23호이고, 인구는 봉통마을을 합쳐도 54명에 불과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섬에 활기가 넘치고 젊은이들로 북적댈 것이다. 윤수남 어르신은 오늘도 대두라도의 밝은 미래를 위해 마을 숙제를 하고 있다.

2) 봉통 마을 4총사 할머니

■ 더도 덜도 말고 오늘처럼 살면 좋겠어.

섬을 찾기 3주전 두라도 교회 목사님과 통화를 하고 섬을 찾아가면서 설마 두라도에 교회가 두 개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섬에 도착하고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가 되질 않는다. 예배시간 때문일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교회로 가셨을까 분명 3주전에 통화를 했는데 하면서 걱정만 한 아름 안고 고민하다 두라마일에 도착해서야 두라도에 교회가 두 개여서 생긴 혼란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대두마을이 아닌 봉통마을 교회에 있었다. 마을의 생긴 모양이 마치 별통처럼 생겨서 옛날부터 별통마을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봉통마을이라 부른다. 마을 이름이 별통이니 사람들에게게서도 얼마나 달콤한 꿀 향기가 나고 사랑이 넘쳐날까? 어렵게 목사님과 통화가 되었고 대두마을과는 2km 정도 되는 꽤 먼 거리여서 데리러 오셨다. 차를 타고 한참을 가니 금오도 여천항이 바로 보이는 대두마을 뒷편이 보였다. 봉통마을은 꽤 높이 위치해 있는 느낌이다. 두라도교회 목사님 소개로 마을 경로당을 방문했더니 할머니 4명이 쉬고 계셨다.



황종림 어르신



김말래 어르신



장용업 어르신

(1) 황종림 어르신

황종림 할머니는 올해 84세로 화정면 제도가 친정이다. 대두라도 별통마을에서 제도로 시집온 시누이가 중매를 하여 봉통마을에 사는 남편과는 21살 때 결혼했다. 결혼식 때 제리도에서 가마를 타고 마을 선창까지 갔다가 가마에서 내린 뒤에는 배를 타고 봉통마을로 왔고 배에서 내린 뒤에는 또다시 가마를 타고 시댁까지 오는 멀고 먼 길을 왔다.

“친정아버지가 화정면 우좌(위쪽)으로 시집을 가야지 썩 빠진 섬에는 안된다. 빠진 섬으로 안 보낸다. 빠진 섬으로 시집가면 못씨다고 하더만은 연분이 되려고 그랬던가 어쨌든 이리 왔네.”

남편은 형을 대신해 19살에 군대에 갔으나 너무 어리고 작아서 그랬는지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몇 년 뒤에 본인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두 번 가야만 했다. 그래도 입대 후에는 키가 작아서 그랬는지 운이 좋았는지 편한 보직에 배치되어서 편하게 군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남편이 군에서 제대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은 5살이 더 많은 당시 26살이었다. 결혼 당시 시댁에는 시할머니와 시어머니가 계셨고, 시아주버니 두 명과 동서 한 명과 같이 살다가 남의 집 작은방을 얻어 분가해 살았다.

남편은 철선을 타면서 난파선이나 가라앉은 선박을 찾는 일을 했다. 한국 전쟁 당시 쇳덩어리나 도자기, 각종 물건 등을 싣고 가던 배가 기뢰에 의해 폭파되면 가라앉았는데 그 배의 물품을 다시 찾는 일을 한 것이다. 남편이 가라앉은 장소에 가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 머구리(잠수부)가 정확한 장소를 찾아서 알려주면 잠수부들이 바닷속에서 배를 찾아 해체한 뒤에 물 위로 올렸다.

남편은 고등교육을 받지 않는 비록 학력은 낮았지만, 영리해서 배가 가라앉은 지점을 잘 찾다 보니 여수뿐만 아니라 남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철배를 타고 배 찾는 일을 했다고 한다. 황종림 할머니는 슬하에 2명의 딸과 4명의 아들 모두 6남매를 두었다. 남편이 철배를 타고 집을 자주 비우니 아이들은 혼자서 키우다시피 했다. 비록 남편이 철배를 탔지만, 지금처럼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다고 하였다. 그래도 자녀들을 가르치고 키울 만큼은 많이 벌었다고 자족하였다.

남편은 40대 정도에 철배 일을 그만두었고, 69살 때 사망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살아있을 때 자식들을 많이 결혼시켜 걱정을 덜었다고 한다. 지금 생활도 마을 주민들은 적지만 봉통마을에서 사는 것이 즐겁다고 한다.

“재미있게 사는 것은 농사짓고 저 산에도 가서 나물 캐다가 팔고, 밭에서 쭉도 캐다 팔고, 저 여수상회에 가서 팔아 그랑저랑 살아온 것이 이때까지 산 겨여. 위쪽(육지)으로 빠져야 하는데 봉통마을 여기로 빠져갖고 젊은 사람도 적고 그렇지마는 남자들이 그러고 사니까 따라오고 교회 목사님도 좋은 말씀도 해주고 그래서 그럭저럭하니 살았지. 아랫집에 콩 한 되, 윗집에 팥 한 되, 그럭저럭 먹고 살았어. 허허”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일만 하면서 반평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서로 도우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랑하신다.

“예전에는 농사일 하느라 놀 시간도 없었어. 삼을 삶아 삼베 짜는 길쌈도 하고 다 그러고 살았지. 요즘은 사람이 적게 살아도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많이 도와주고 행복하게 사요.”

(2) 김말래 어르신

김말래 할머니는 올해 87세로 금오도 함구미마을에서 21살에 중매로 결혼해서 봉통마을로 시집을 왔다. 당시 봉통마을에서 함구미로 시집 온 사람이 있어 중매를 해주었다. 당시 남편은 26살이었는데 남편만 믿고 따라 왔더라.

대두라도는 물도, 나무도, 모든 것이 귀했던 섬이라 힘겹게 살아왔다. 슬하에는 딸 셋에, 아들 넷 모두 7남매를 두었다. 논 한다랑이로 쌀농사도 짓고, 해우양식도 하고 살았는데 남편이 1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냥 살고 있단다.

“사는거? 재미로 사는거지, 아니 그냥 사는게 사는거지 뭐, 힘이 들어도 된 줄도 어쩐 줄도 모르고 젊어논게 그러고 살았지 뭐”

(3) 장용업 어르신

장용업 할머니는 1938년 무인생 호랑이띠로 올해 나이 87세이다. 금오도 우학리 뒷편 산골에 있는 찬물내기라 부르던 냉수동이 고향인데 봉통마을에 살던 최씨 어른이 중신을 해서 19살에 결혼했다. 중신쟁이가 갓을 쓰고 찬물내기 집을 찾아왔는데 보기 드문 광경이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여 서툰 결혼생활과 보고 싶은 친정 식구들 생각에 많이 울기도 했더라. 시댁에는 시할아버지와 시어머니, 시아버지, 큰동서, 시아주버니 등 아홉 식구가 살았다.

시댁에서는 농사를 지었는데 논농사를 조금 짓고, 주로 밭에서 보리를 키워 보리쌀 짚어서 먹고, 겨울 삼동에는 김양식을 했다. 두라도는 물이 부족해서 논두렁 가에 있는 물길마다 물을 길러 다녔다.

“농사짓고 보리쌀 짚어 먹고 삼동에는 해우양식 허고 물이 없어 논가마다 물 질러 땀기고 힘들어도 그런 소리 헐 줄도 모르고 그런 소리 받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

장용업 할머니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아들을 낳고 그 밑으로 딸 4명을 낳았다. 자식들을 조금 늦게 낳았지만 다행히 구박은 받지 않았다. 자식들은

다 커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며, 남편이 4년 전에 세상을 떠서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 남편이 국가유공자여서 대전 현충원에 모셨다. 남편은 19살에 군대를 갔는데 5년간 군대 생활을 했다. 큰형님을 대신해서 군대를 갔는데 한국전쟁 중에 같이 간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다리에 총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 때문에 남편은 평생 건강이 좋지 않았다.

“우리 아범이나 나나 고생 많이 하고 살았지. 그때는 그러고 살아놓으니까 그걸로 사는 갑다 그랬지.”

장할머니의 자녀들은 다 외지에 나가 살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 경로당에 와서 이렇게 놀고 있어 지금은 이런 재미로 산다. 19살에 이곳으로 시집와서 68년을 이 동네에서만 쪽 살았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좋았어요. 한 30집 살았는데 집집마다 한집에 서이, 너이에 여섯, 여덟 사는 집 식구가 많고, 한둘이만 사는 집은 별로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물이 없어서 고생했어요. 논가에서 물을 길러다가 소나, 돼지에게 먹이면서 키웠는데 많이 힘들었지. 소도 많이 키우고 살았제. 그때는 그러고 살아논께 이제 그러라 모르고 살고 그냥 당연한 걸로 여기고 편한 세상을 못 살아 본께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좋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지.”

(4) 황영애 어르신

황영애 할머니는 올해 84세로 고향은 화정면 월호도이다, 당시 대부분 중매를 통해 결혼하는 시절이라 얼굴을 직접 보면서 선을 봤는데 남편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다. 결혼하고 1년 정도 시댁 식구들과 같이 살다가 분가를 해서 따로 살게 되었다.

황영애 어르신은 황종립 할머니와 나이도 같고, 남편끼리 나이도 같고, 남편의 직장도 같아 두 사람이 함께 철배를 탔다. 남편은 철배가 동네 가까이 있을 때는 자주 오지만 멀리 나가면 한두 달 만에 오기도 했다.

슬하에 5남매를 두었는데 아들 셋에 딸 둘을 낳았다. 남편이 27년 전에 일찍 세상을 떠나 가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봉통마을에서는 바다가 상당히 멀지만, 바다에 나가서 작은 김발 양식을 했다. 마을에 먹을 물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황영애 할머니도 물을 길러 다니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하단다.

“이 마을에는 물이 없어서 대두마을까지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물 장군을 지고 가서 물을 질러 다녔지. 빨나무도, 먹을 물도 없어서 무척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다행히 수도가 들어온 지는 한 10년 정도 되었어. 샘 물 길어다 묵다가 너무 좋았지.”

봉통마을의 황종립, 김말래, 장용업, 황영애 할머니 모두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있다. 그래서 네 분은 밥도 함께 먹고, 미장원에 가도 함께 가고 무엇이든지 서로 가지고 나와 나눠 먹고 서로의 안부를 걱정해 주는 사이다. 나이와는 상관없이 친구처럼, 동무처럼 재미나게 살아가신다. 누군가가 말 한마디만 해도 자지러지게 웃고 옛이야기도 술술 나온다. 봉통마을 경로당의 할머니들이 더도 덜도 말고 지금처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소망해 본다.

3) 천석꾼이 살았던 소두라도 지킴이 김창운, 김정호 어르신

소두라도 일명 작은 두라도에 사는 반장님을 만나기 위해 여수를 출발하였다. 돌산도 남쪽 끝자락에 여수의 다리 박물관을 꿈구며 건설된 11Bridge의 동쪽 첫번째 다리인 화태대교를 건너 달밭기미라는 정겨운 우리말 이름을 가진 화태도 월전항에 도착하여 작은 두라리로 데려다 줄 보트를 기다렸다. 5분 정도 기다리니 스리랑카에서 왔다는 청년이 운전하는 작은 배가 와서 그 배를 타고 소두라도로 향했다.

초행길이라 작은 두라도로 가야 하는데 어느 쪽으로 갈지를 몰라 당황했다. 배를 모는 스리랑카 청년도 작은 두라도를 몰라 눈앞의 섬이 작은 두라도인데도 바다 위에서 한참이나 헤맸다. 다행히 나발도의 임영철 어촌계장에게 전화를 해서 배를 대야 할 곳을 확인하고서야 겨우 소두라도에

도착하였다.

마침 도착한 선착장에는 섬섬여수2호 도선이 정박하고 있었다. 소두라도는 여수에서 갈 수 있는 여객선이 없기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오려면 사선이나 낚싯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여수시에서 정기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섬에 도선을 마련해 2023년 말부터 섬섬여수2호가 운항하게 되었다.

소두라도는 필자⁷⁾가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곳이다. 소두라도 근처 작은 섬에서 태어났지만 살던 섬을 벗어나 본 경험이 별로 없었다. 필자가 태어난 마을은 소두라도와 바로 인접해 있는 섬이었지만, 흰머리가 희끗희끗해서야 처음으로 찾아본 것이다.

도착한 선착부두에는 서너 명의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었다.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궁금해 다가가서 보니 볼락이 생선 박스 속에 몇 마리 들어 있었다. 볼락은 거의 고기로 쳐주지도 않는 것 같았다. 필자가 어렸을 때 새벽이면 할아버지께서 대나무 천대를 들고 마을 뒷산을 넘어 바닷가에서 검은색의 볼락을 잡아 오면, 아침을 지어낸 아궁이의 뒷불에 구워서 아침밥과 함께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섬을 둘러보니 숲에 가려져 어디에 마을이 있는지 집들이 얼른 눈에 띄지 않았다. 마을로 들어서자 한가운데에 2층 건물이 있어 가까이 가서 보니 누군가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나발도 어촌계장님이 미리 전화 연락을 해 두었다던 김창운 어르신이다. 반갑게 인사드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아늑한 공간이 나왔다. 마을 주민의 쉼터인 것 같다. 마침 또 다른 어르신 한 분이 함께 계셨다. 섬에서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이야기했더니 “뭘가 있겠어. 허허.” 수줍게 말하면서도 반갑게 맞아주었다. 처음 보는 분이었지만 ‘섬’이라는 곳은 약간의 경계심과 반가움이 한꺼번에 묻어나는 그런 곳인 것 같다.



천석꾼 집터

7) 김미경(1967년생), 일과복지연대 소장

(1) 김창운 어르신

김창운 어르신은 올해 나이가 83세이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소두라도를 떠나지 않고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왔다. 김창운 어르신의 아버지는 고향이 소두라도이고, 어머니의 고향은 저 건너 화태도이다. 김창운 어르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이미 100세를 넘기었고, 슬하에는 5남매를 두었는데 그중에서 세 명은 세상을 떠나고, 형님과 본인 두 명만 살고 있다. 김창운 어르신의 형님은 여수에 살고 있다는데 말하면서도 형제들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이 눈가에 묻어난다.

지금까지 계속 소두라도에서 살았는데 옛날 소두라도 사람들은 대부분 반농반어 형태로 먹고 살았다. 보리, 고구마 농사를 많이 했고,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 미역, 홍합, 툇 등을 채취하고, 낭장망을 설치하여 멸치잡이도 했다. 부지런히 살아도 작은섬 생활이 다들 어려웠는데 특히 춘궁기라 불렀던 봄이 되면 먹을 식량이 부족해서 더욱 힘들었다. 김창운 어르신 형제들은 화태도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형편이 조금 나은 집에서는 여수 시내로 보내기도 했지만, 대부분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많지 않았다.

김창운 어르신은 스무살에 결혼했다. 공교롭게도 자신의 아버지와 똑같이 5남매를 두었는데 자식들은 이곳 소두라도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당시에 소두라도 주민들이 한 30호 정도 되고, 집집마다 아이들을 많이 낳다 보니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느껴 1960년대 말인가 1970년대 분교를 세웠다. - 남아 있는 학교 이력에는 1966년 3월 1일 화태국민학교 소두분교로 개교했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힘을 합쳐 부지를 내놓고 건물을 교육청에서 지어주었다. 지금은 학교가 폐교되면서 건물을 다 철거해 버리고 터만 남았는데 잡초가 무성해서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아쉬워 한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식들은 여수 시내로 유학을 보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때 소두라도에서 농사와 바닷일로 생계를 이어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따라가서 밥을 해주거나 돌보지 못했고, 친척집이나 월셋집을 구해 한 달마다 양식을 대주면서 하숙을 하게 했다. 가끔 반찬도 만들어 한 달에 한두 번씩 들여다보는 정도로 아이들을 키웠다. 이제 자녀들은 모두 성장하여 학교를 졸업하였고 직장을 구한 후 섬을 떠났다. 어촌의 어려운 삶 속으로 찾아 들어오는 젊은이는 찾아보기 힘들고 섬에는 매년 나이 들어가는 노인들만 사는 형편이다. 소두라도는 한때 24호, 100명 정도의

주민이 살았다. 당시만 해도 동네에는 전투경찰이 지키는 경비초소도 있고 교회도 있었으며 학교도 있었다. 이웃한 섬마을마다 지내던 당제도 지냈다.

결혼했을 당시만 해도 동네에서 논의해서 생기복덕 있는 사람이 당주로 선정되어 당제를 지냈는데 김창운 어르신도 당주를 한 2년 정도 맡았으니, 당제를 지내지 않은 것이 수십 년이 넘었다. 왜 당제를 그만두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국가에서 쓸데없는 낭비이고, 미신이며 사라져야 할 민간신앙이라고 여기며 관심을 두지 않은 면도 있었다. “사람이 입으로 귀신 만든다”는 말이 전해지면서 당산에서 총을 쏘아 귀신을 쫓아내기까지 했다고 한다. 마을 당제를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로 보질 않고 버려야 할 허례허식으로 여기는 주민이 많아지고 당주를 뽑아 당제를 지내는 절차를 불편하게 인식하는 사람도 많았다.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당제는 사라지게 되었다.

소두라도의 자랑거리를 묻자 산위로 올라가서 섬을 쪽 둘러보면 좋은 공기를 가진 섬의 환경과, 배를 대기 좋게 잘 만들어진 선착장이 좋고 사철 푸른 후박나무, 동백나무, 소나무가 좋다고 자랑하신다.



김창운 어르신(좌), 김정호 어르신(우)

(2) 김정호 어르신

김정호 어르신은 김창운 어르신보다 3살 적어 올해로 80세이며, 마을 이장을 오랫동안 맡았다. 김정호 어르신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부터는 여수로 나가서 객지 생활을 하였다. 자식을 두 명 두었는데 아들과 딸 모두 객지에 나가서 살고 있어, 섬에는 부부만 살고 있다. 섬에 와서 이장을 10여 년 역임했다. 사업한다고 이것저것 하다가 60살이 가까워졌을 때 소두라도에 살고 계신 부모님을 모셔야 해서 섬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이곳에 눌러앉은 것이 벌써 20년이 넘어가고 있다.

“왜 다시 육지로 나가지 않았는가요?” 이유를 묻자

“왜냐하면 여기가 공기도 좋고, 시내 나가봐야 뭣 할거요? 가면 맨날 할 일도 없고 나이 먹어가지고 직장생활 할 데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 눌러앉아 버린 것이지.”

“이제 이 나이 되니까 할 게 없어. 나이가 80인가 뭐 지금은 이장 해서 뭣 할거여.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서 객지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이곳에서 산 지가 30년이 좀 넘었다. 살기엔 공기 좋고 다 좋은데.”

(3) 소두라도 천석지기

소두라도 마을 선창을 돌아보면 큰 집터가 있다. 해방 시기에 천석지기가 살았던 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사연을 물어보니 두 어르신께서 서로 마주보고 웃는다. 김정호 어르신의 집이란다.

“내가 바로 그 집 7대 종손이여.”

옛날에는 소두라도 천석지기 하면 거무섬(남면 금오도) 인근에서는 가장 큰 부자집이었다 한다. 일제가 패망하고 일본인들이 본토로 돌아갈 때 그 집과 인근의 땅까지 김정호 어르신의 할아버지에게 주고 갔다고 한다. 당시는 소두라도가 여천군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일본인이 남기고 간 땅은 삼일면을 비롯해 여수지역 곳곳에 많이 있었다. 농사를 지어서 소작인들이 가지고 들어오면 곡식을 쌓았던 창고가 2~3개씩 되었고, 일하는 머슴도 일곱인가, 여덟이 되었다고 한다. 이승만이 통치하던 해방 시기때는 사업과 함께 고기를 잡는 바다 사업도 성행하여 농사로 거둬들이는 수확도 많고, 바다 사업으로 어획고도 많이 올려 여수까지 많은 고기를 실어 나르며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한다.

“저기가 천석지기 터여. 잘 보면 담벼락이 전부 일본 사람들이 쌓아둔 것이여. 그 집 기와집이 아홉 채였는데 지금은 다 뜯어서 없어졌어.”

옛날엔 부잣집이라고 소문났던 집인데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어.”

그러다가 이승만 정부 때 토지개혁을 하면서 일본인 재산이라는 이유로 전부 뺏겨버려서 그 뒤로 차근차근 부를 잃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금은 천석지기는 옛말이고 폐가가 되어 버렸다. 한때 남면 인근에서는 제일 유명했다는 천석지기 부잣집이 지금은 쓸쓸한 폐가로만 남아 있어 인생사 화무십일홍이란 옛말이 떠오른다.

소두라도의 김창운, 김정호 두 어른은 이 섬에서 큰일 없이 서로 의지하고 자식들 키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다른 섬들도 그렇듯이 소두라도의 주민들도 자식 교육만큼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살아왔다. 자녀들 대부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까지 진학한 사람들도 많다. 게다가 소두라도 마을은 김씨가 가장 많은 집성촌이 되면서 외지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도 제대로 행세하지 못했고, 예전에 들어왔던 교회도 주민 속에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 떠나버렸다고 한다.

작은 섬에 살면서 어려운 점이 여럿 있지만 두 어른신이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은 2개가 있단다. 먼저 정기 배편이 없어 교통이 불편한 것이다. 도선이 생기기 전까지는 여수에서 소두라로 오는 방법은 뉘싯배로 오거나 사선을 빌려서 오는 길밖에 없었다. 화태 월전에 가면 뉘싯배들이 많아 그 배를 타고 와야 했기에 육지로 오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다행히 이제는 시에서 마련한 배편이 생기면서 교통이 조금 편해졌다. 이제는 화태도까지 버스나 자동차를 타고 와서 섬섬여수2호를 이용하면 소두라도로 올 수 있다면서 ‘바다 버스’, ‘바다 자가용’이라고 하면서 무척 좋아하셨다.

두 번째 애로점은 화장실 정화조이다. 동네에 6~7가구가 살고 있는데 작은 정화조가 집집마다 있어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걱정한다. 마을 정화조를 하나로 크게 만들어 오폐수를 처리하면 바다오염이 크게 줄어드는데 다도해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여수시에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으며 꼭 마을 공동의 정화조 시설이 설치되길 희망했다.

한편, 섬을 취재하는 방문객들을 대하는 김창운, 김정호 두 어른신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계기로, 소두라도 주민들이 바라는 일들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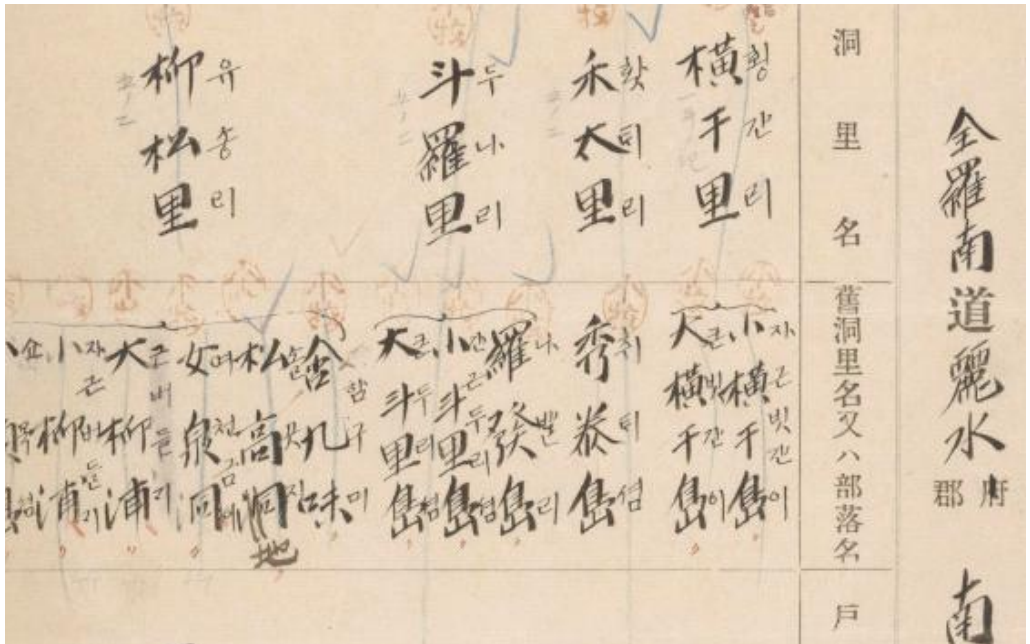
4. 두라도의 민속문화

가. 두라도의 지명유래



두라도 지명지도

(1) 대두라도



1916년 전라남도 지지조서 중 두라리 부분

- 동끝 <마을> : 대두라도의 동쪽 끝에 있는 마을. 동(東)쪽의 끝(末)에 있음.
- 인금(仁今) <마을> : 봉통마을 동쪽에 있는 마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어진 사람이 많이 태어났다 함.
- 공동묘지 <묘지> : 두라리 산 337-3번지에 있는 공동묘지
- 선창 <마을> : 봉통마을 북쪽에 있음. 여객선이 접안하여 내왕하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선착장이 있다하여 명명됨.
- 후박나무 <나무> : 봉통마을 뒷산에 있는 나무. 18그루가 있음.
- 넘덕골 [절터골] <지역> : 대두라도 중앙 고개 부근으로 종이 절을 지으려고 터를 닦았으나 짓지 못하고 남은 터, 혹은 절터

- 동백나무골 <지역> : 대두라도의 북쪽으로 동백나무가 많은 지역
- 선바구 <바위> : 대두라도의 북쪽 선창에 있는 서있는 형상의 바위
- 넘너리 <해안> : 대두라도 북쪽 학교가 있는 지역의 큰 파도가 달는 해안
- 노랑너리 [노랑널뱅이, 노랑바구] <바위> : 두라마을 북쪽 학교 앞 해안으로 노랑바위가 있는 곳
- 인그미 <마을> : 두라리 북쪽 마을
- 개맛동 <마을> : 두라리의 개(해변)와 맞닿은 동네
- 열동바구 <바위> : 사라호 태풍으로 서 있던 바위가 누워버렸다고 함
- 옷나무재(개) <고개> : 두라마을의 옷나무가 있는 고개
- 비자나무골 <골> : 두라마을의 비자나무가 있는 골짜기
- 밤나무골 <골> : 두라마을의 밤나무가 있는 골짜기
- 건네 <지역> : 두라마을 동쪽으로 마을 건너편
- 구렁이바구 <바위> : 두라마을에서 구렁이를 잡으면 버리던 곳
- 동꼬트리 <골> : 두라마을 동쪽 끝 지역
- 진다래강정 [진 갱본] <개> : 두라마을 동남쪽의 길이가 긴 개
- 목넘 <지역> : 두라마을 동남쪽의 목넘어 해안
- 밍차니 <지역> : 두라마을 목화를 심었던 곳, 밍은 목화의 방언
- 공산 <지역> : 두라마을 공동산
- 잔무싱이 <지역> : 두라마을 동남쪽 해안
- 태배기꼬트리 [큰무싱이꼬트리] <골> : 두라마을 동남쪽으로 턱을 내민 모양의 지형에서 유래
- 자밤나무밑 <해안> : 두라마을 동남쪽 해안으로 자밤나무가 있는 아래 해안
- 큰돌 <바위> : 두라마을 동남쪽 산으로 큰 바위가 있는 지역
- 옛끝 <골> : 봉통마을 동쪽 여가 있는 골
- 저건너 <지역> : 봉통마을 선창이 있는 지역
- 등칠 <지역> : 봉통마을 아래 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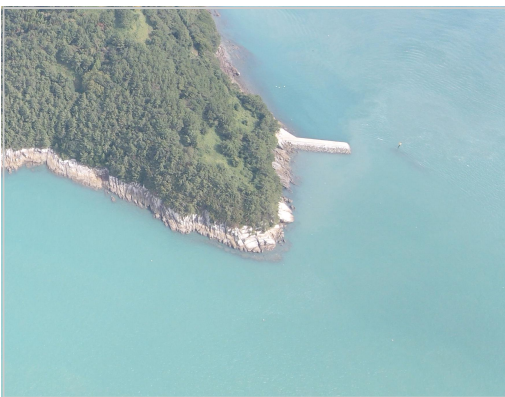
- 서끄트리 [서끝] <끝> : 두라도의 서쪽 끝 해안
- 질마바구끄트리 <끝> : 봉통마을 서쪽으로 짐을 진 말처럼 생긴 바위 끝
- 줌방골이 <지역> : 봉통마을 서쪽 골짜기
- 짝둥큰골 <지역> : 봉통마을 서쪽으로 짝둥은 짝 갈라진 등성이란 의미
- 흘솔골 <지역> : 봉통마을 서쪽 골짜기
- 신추 <지역> : 봉통마을 서쪽 지역
- 당산(당몬당) <제당> : 두라마일과 봉통마을 중간에 있는 당집이 있는 산



대두라도 선바위



대두라도 동골



대두라도 서끝



소두라도 바깥여(당주여)

(2) 소두라도

- 오서 <섬> : 대두라도 동쪽에 있는 섬. 형태가 마치 까마귀같이 생겼음.
- 저넘 <지역> : 소두라도에 있는 마을 너머에 있는 지역
- 신추 <해안> : 소두라도에 있는 센 파도가 달는 해안
- 선창 <선창> : 소두라도 선창
- 문당 <고개> : 소두라도 마을 뒤편 고개
- 송곳여 <여> : 소두라도에 있는 송곳처럼 뾰족하게 생긴 여
- 오지바위 <바위> : 소두라도에 있는 바위
- 지양낭밑 <해안> : 소두라도에 있는 해안 지명
- 바깥여(당주여) <여> : 소두라도에 있는 여
- 시무곶 <곶> : 소두라도에 있는 해안지명
- 통옆 <해안> : 옆에 통이 세 군데가 있음
- 뒷면 <지역> : 동네의 뒷편인 북쪽

나. 두라도의 설화

옛날 어느 풍수가가 말하기를 대두라도에 가구 수가 100호 이상이 되면 화가 있고, 100호 미만이면 화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대두라도는 지금까지 가구 수가 100호를 넘어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대두라도

다. 두라도의 신앙

1) 대두라도의 당제

대두라도에서 당제를 언제부터 지냈는지 전해오는 문헌이나 증언이 없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두마을과 봉통마을에서 공동으로 1980년

대 초반까지 음력 정월 초하루 자정(자시)에 당제를 지냈다.

제를 모시는 곳은 대두마을과 봉통마을의 중간쯤에 위치한 산 정상부근에서 선창 쪽으로 100여 미터 아래로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돌로 쌓아 곁에 시멘트를 입힌 기와지붕의 2칸 건물로 한 칸은 제실로 벽에는 3층의 선반이 있고, 선반에 층별로 제기가 놓여 있었고, 제를 모실 때 제상 대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며, 또 다른 한 칸은 부엌이었는데 지금은 당집이 무너져 내려 흔적만 남아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당집이 아니라 1970년대에 지은 것으로 추운 겨울 날씨에 대비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체는 산신으로 마을의 평안과 무사고, 풍어 등을 빌었다.

음력 12월 20일경이 되면 대두마을과 봉통마을의 개발위원과 유지들이 함께 모여 당주를 1명 선출했는데, 당주가 될 사람은 부부가 다 같이 정결하고, 생기복덕이 맞아야 했고, 집안에 초상이나 우환 등이 없는 사람이어야 했다. 당주 부부는 제사 3일 전에 제당에 올라가 청소하고 황토를 깔며, 금줄을 쳐서 잡인의 접근을 금하고, 제장(祭場)을 청소한다. 또 매일 목욕재계하며 출타를 삼가고 치성을 드렸다. 제물은 정결한 사람이 사 오는데 주로 명태와 같은 건어물과 꽃감, 은행, 대추, 밤 같은 과실 등이다. 제물을 살 때는 가격을 깎지 않았다. 당제 비용은 마을의 공동자금에서 충당하였다.

음력 선달그믐날 밤이 되면 당주는 목욕재계하고, 제물을 가지고 당집에 올라갔다. 올라가는 중에 부정할 것이 있으면 다시 내려와 목욕재계하고 올라갔다. 정월 초하루 자시가 되면 향을 피우고, 제물을 올리는데 벽에 붙박이로 만든 세 계단의 선반 위에 진설하고, 맨 위층 선반에는 당산할아버지의 제물을 놓고, 가운데층 선반에는 당산할머니의 제물을, 마지막으로 맨 아래층 선반에는 당산할아버지 제자의 제물을 차려 놓았다. 제주가 3배를 올린 후에 입축을 했고, 다음에는 소지 3장을 올리고 나서 당산할아버지 제물은 참종이에 싸서 제당 뒤에 있는 큰 바위 사이에 묻고, 당산할머니의 제사상과 당산할아버지 제자의 제사상 제물은 제당 문밖 좌우에 땅을 파서 묻고 위에 큰 돌로 덮어 두었다. 마지막으로 향불을 피워 제를 끝냈다. 당제에서 쓰고 남은 시루떡(마실이)은 도제(都祭)를 모실 때에 썼다.

정월 초하루 세배와 성묘를 마친 뒤 오후 2시경에 매구꾼들이 모여 매구를 치면서 깻가에 있는 도제터로 모였다. 당주 집에서 한 상을 차려 내오고 각 가정에서도 제물을 한 상씩 준비해가지고 나와 진설했다. 제당에서 가지고 온 떡시루를 여조대 위에 올려놓고 이장과 개발위원장 등이 정화수로 손을 씻은 다음 큰 상에 잔을 올리고 재배했다. 이때 큰 상은 마을을 향하도록 놓아두어 마을 대표들이 마을 당산을 향해 절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 가장 정결한 한 상만 가지고 선창으로 나아가 당주와 마을 대표들이 바다를 향하여 재배한 후 제물을 조금씩 떼어내 물밥을 만들어 바다에 던지면서 마을을 위한 기원을 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남은 음식을 나누어 먹고 노는데 매구꾼들은 샘굿을 친 후에 당주 집에서 매구를 치고 나서 마당밧기를 했다. 다만 마당밧기는 동회에서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했다.

대두라도는 1980년대 초까지 당제를 지냈고, 이후 그 맥이 끊겼다. 처음에는 당제를 모시지 않았을 때의 징치(懲治)를 두려워했으나, 몇 년을 지내지 않아도 마을에 별다른 일이 없자 계속 지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당집터



당집

2) 소두라도의 당제

소두라도에서 언제부터 당제를 모셨는지는 전해오는 문헌이 없어 정확히 알 수 없고, 마을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다. 당제를 음력 정월 초하

루 자시에 모셨다.

소두라도는 당집이 따로 없고, 마을 뒤편 당숲 안에 있는 바위에 금줄을 치고 제사를 모셨으며, 신체는 산신이다.

당제 일주일 전에 마을 총회에서 제주 1명을 선출했는데, 제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생년 생월 생일 생시를 따져서 생기복덕이 맞아야 했고, 상가나 출산이 없고, 집안에 불화나 병고가 없어야 했다. 제주가 된 사람에게는 ‘바깥여’에서 우무, 미역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가 선출되면 제당과 주변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한 후 금토(황토)를 깔고, 금줄을 쳐서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했다. 한편 제주는 가급적 출타하지 않고, 매일 목욕재계를 하며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목욕하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며 술주정이나 싸움을 삼갔다.

제물은 명태, 콩나물, 메, 국 등이었으며, 이장이 여수 시내로 나가 물건을 사왔는데 물건을 살 때는 절대 가격을 깎지 않았다고 한다. 제사 비용은 마을 공동비용에서 사용하였다.

음력 선달그믐날 오후에 제당 근처에서 나무를 얇게 대패질해 불이 쉽게 붙도록 메를 지을 준비를 해 놓는다. 저녁에 제주가 제물을 들고 제당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중에 더러운 것이 있거나, 개가 짖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집으로 돌아와 목욕재계하고 다시 올라간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등너머에 있는 바닷물이 빠지는 간조에 드러나는 ‘등너머 샘’에서 물을 떠와 메를 만들어 제사를 올렸다. 정월 초하루 자시가 되면 제를 지내는데, 순서는 분향 후에 진설하고 제주 1잔을 올리고, 재배한 후에 고축을 했다. 제사를 마치면 메를 메무덤에 묻었다.

부대행사로는 헌식을 했는데 초이틀날 당주집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바닷가에 진설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매구를 치며 헌식을 했다. 샘긋을 치고 집집마다 마당뽕기를 하면서 대보름까지 놀았다.

소두라도는 1980년대 초반까지 당제를 지냈으나 이후 중단되었다. 당제를 모시고자 해도 주민들이 노령화되고, 마땅히 제주를 맡을 사람도 없어서 지내지 않게 되었다.



상당



우물터

3) 기독교

(1) 두라리교회

대두라도에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1936년 5월로, 봉통마을 김두식 장로집에서 가족 3명이 첫 예배를 드렸고, 1938년 3월 교회가 창립되었다. 1945년 김두식 장로 집 옆에 40평 규모의 교회를 신축하였고, 1961년에 두라리 442-3번지에 4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1982년 42평 규모



두라리교회

모의 벽돌슬레이트 구조로 건물을 개축하였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으로 2024년 1월 1일 현재 김수열 목사가 시무 중이다.

-
- 1936. 05. 두라리(봉통) 443번지(김두식 장로집)에서 가족 3명의 첫 예배로 교회 시작
 - 1938. 03. 10. 교회 창립
 - 1945. 두라리 443번지 옆에 목조와가 40평 교회 건물 신축
 - 1961. 두라리 442-3번지에 블록합석 40평 교회 건물 신축 이전
 - 1982. 벽돌슬레이트 42평 교회 건물 개축

(2) 대두교회

대두교회는 1982년 대두라마에서 23평 규모의 교회를 신축하고 입당하였다. 2001년 12월 두라리 218번지에 예배당을 입당하였고, 2003년 10월 예배당을 헌당하였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으로 2024년 1월 1일 현재 이홍식 목사가 시무 중이다.

-
- 1982. 03. 28. 예배당 신축 입당(두라리 246번지에 블록합석 23평)
 - 2001. 12. 11. 예배당 입당(두라리 218번지)
 - 2003. 10. 28. 예배당 헌당



대두교회

(3) 소두라교회(폐교)

소두라도에는 소두라교회가 있었으나 지금은 폐교되었다. 1990년 3월 두라리 65번지 주민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1990년 4월 두라리 16번지에 17명 규모의 교회를 신축하여 입당 예배를 드렸다. 교인 수가 감소함에 따라 2013년 10월 폐교되었다.



소두라교회(폐교)

-
- 1990. 03. 10. 두라리(소두라도) 65번지 김종석 집에서 첫 예배
 - 1990. 04. 13. 두라리 16번지에 벽돌슬레이트 17평 교회 건물 신축 입당예배
 - 2013. 10. 14. 소두라교회 폐교